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7년 2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29번(주 예수 따르기로)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마르 1,16-20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본당 30주년의 내적 준비로 새 성경 읽기와 성경문제 풀어보기
(성경 읽기표 참조)
-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63번(온 세상에 전파하리)

MEMO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제3장 친교의 원천이며 현현인 성체성사

빵 한 덩어리와 한 몸

21. 성체성사는 교회 일치의 원천이자 그 최고의 현현입니다. 성체성사는 친교의 공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이 성찬례 거행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지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친교가 요구하는 것들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감사기도에서 교황과 교구장 주교를 언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계적 친교입니다. 또 상호 개방과 애정, 이해와 용서를 촉진하는 ‘친교의 영성’으로 자라나는 형제적 친교입니다.

“한마음 한뜻” (사도 4,32)

22. 거룩한 미사 때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모든 세대에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친교의 이상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도록 요청받습니다. 교회의 모범은 곧 하느님 말씀의 부름을 받아 물질적 재화뿐만 아니라 영적 선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사도 2,42-47; 4,32-35 참조). 이 성체성사의 해에 주님께서서는 이 이상에 되도록 가깝게 다가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교좌성당에서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참석할 가운데에 주교가 자기 사제들과 부제들과 함께 거행하는 ‘장엄 미사’ 전례에서 그러한 순간들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탁월한 ‘현현’을 보게 됩니다. 본당 사목구 차원에서, 친교 의식을 키우고 성찬례 거행에서 새로운 열정의 원천을 발견하는 다른 중요한 기회들을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

23. 특별히 저는 올해에 주일을 주님의 날로 그리고 교회의 날로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모든 이가 다시 한 번 교황 교서 「주님의 날」에서 제가 한 말에 대하여 성찰해 주면 기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 미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함께 모여 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체험하였던 것을 특별히 강렬하게 다시 체험합니다(요한 20,19 참조).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시대의 하느님 백성은 교회의 첫 열매인 제자들의 이 작은 핵심 조직 안에 현존하였던 것입니다.” 이 은총의 해에, 사제들은 사목 직무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과 운동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 본당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식인 주일 미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름의 길

<마르 1,16-20>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고기 낚는 어부 넷을 낚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낚인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들이 가족과 재물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낚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한테 낚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린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낚시는 '곧은 낚시'라 제자들의 자의(自意)를 조금도 억제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따름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아보자.

따름은 포기를 전제한다.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샹군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따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름은 지금까지의 생활과 그 환경을 버림이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걷는다. 사람을 낚아야 하는 이가 고기 낚는 어부의 생활 태도와 자세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따름은 또한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다. 이제 옛 가치관은 완전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앞서 가시는 그분에 따라 새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새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옛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포기는 아픔을 뜻하기도 한다.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따름의 길은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지속적인 투쟁의 길이다. 어떤 것에든 제 자리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동물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다. 인간에게는 옛날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움직임이 있다. 그것들이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근본적으로 본능과 본성을 거스리는 길이다. 그래서 따름은 본성을 거스리는 자기와의 투쟁이기도 한 것이다.

따름의 길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다. 배의 주인이 되는 길이 아니다. 선주는 항상 스승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는 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불행히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비록 말로는 아니더라도 행동으로는 선주 행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부는 고기를 열심히 낚기만 하면 된다. 어부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낚았다 하더라도 선주 노릇을 하려 든다면 그는 이미 어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 우리의 작업이 거두어들이는 성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스승 예수님을 따름이다.

따름의 길은 종의 길이다.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하고 말하여라”. 겸손은 제자에게 덕이 아니라 제자의 본질이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결집된다. 따름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이다. 그러나 따름은 동시에 나를 그리스도로 채워 나아가는 기쁨과 행복의 길이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나눔>

1.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2.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나의 '어떤 것'을 내어 줄 수 있을까요?

늙은 참나무의 기쁨

폭풍이 한차례 숲을 휩쓸고 간 뒤 늙은 참나무는 더 못생겨졌다.
그는 새로 돋는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감추려 애썼지만,
짙은 바람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해 가을, 참나무는 자신의 벌거벗은
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에게 하소연 했다.

"이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난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

그런데 얼마 뒤 딱따구리가 날아와 늙은 참나무 등치를 쪼기 시작했다.

참나무의 몸에서 식량창고를 발견한 딱따구리는
따뜻하고 아늑한 그의 몸에서 가족과 함께 추운 겨울을 났다.

다람쥐도 늙은 참나무의 몸에 보금자리를 틀어 봄까지 따뜻한 겨울을 지냈다.
다람쥐는 기쁘게 재잘거렸다.

"이 구멍 난 참나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얼마 뒤 참나무에게 신비한 일이 생겼다.
딱따구리의 날갯짓과 다람쥐의 행복한 마음이 참나무를 따뜻하게 했던 것이다.
늙은 참나무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한숨 대신 행복의 노래를 불렀다.

가지 끝에 맺힌 빗방울은 보석처럼 빛났고,
별빛과 햇빛은 참나무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었다.

그 숲 속에서 늙은 참나무만큼 아름답고 즐거운 나무는 없었다.

윌리엄 J. 베네트